

Title: Obadiah part 4: Sermon Notes

Scripture: Obadiah 15-21

Date preached: October 3rd 2021**Scripture: Obadiah 15-21****15 “For the day of the LORD upon all the nations *is* near;****As you have done, it shall be done to you; Your reprisal shall return upon your own head.****16 For as you drank on My holy mountain, *So* shall all the nations drink continually;****Yes, they shall drink, and swallow, And they shall be as though they had never been.****17 “But on Mount Zion there shall be deliverance, And there shall be holiness;****The house of Jacob shall possess their possessions.****18 The house of Jacob shall be a fire, And the house of Joseph a flame; But the house of Esau *shall be* stubble; They shall kindle them and devour them,****And no survivor shall *remain* of the house of Esau,”****For the LORD has spoken.****19 The South shall possess the mountains of Esau, And the Lowland shall possess Philistia. They shall possess the fields of Ephraim And the fields of Samaria. Benjamin *shall possess* Gilead.****20 And the captives of this host of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possess the land of* the Canaanites As far as Zarephath. The captives of Jerusalem who are in Sepharad Shall possess the cities of the South.****21 Then saviors shall come to Mount Zion To judge the mountains of Esau, And the kingdom shall be the LORD’s.****15 “□ □□□□ □ □□□□ □□ □□□□ □□. 에돔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 주겠다.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16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향발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네 주변의 모든 나리들도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은 한 없이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아주 사라지고 말 것이다”****17 “그러나 시온산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그 곳이 거룩하게 되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할 것이다****18 아랍의 후손은 불과 같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과 같으며 에사의 후손은 자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태울 것이니 에사의 후손 가운데 살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19 남쪽 네겝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에돔의 산악 자대를 점령할 것이며 유다 자파에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 땅을 소유하고 그들은 또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 들을 소유할 것이며 베냐민 사람들은 길르앗 땅을 차지할 것이다****20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돌아와서 북으로 사르밧에 이르는 페니키아 연안 일대를 점령할 것이며 스비랏에 있는 에루살렘의 포로들은 네겝 지방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21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에돔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Review**

Last time we looked at verses 10 to 14 of Obadiah's prophetic vision. It was the section that we titled “Day of shame.” It laid out God's reasons for deciding to cut off forever the nation of Edom. Or if we think of a judge in a courtroom it was God laying out the charges against Edom. Often atheists are critical of God's actions in the Old Testament. They feel as if He is too harsh or unfair. But as we saw last time the charges against Edom were real and were very serious. Also as I stressed last time that the magnitude of the sins Edom committed escalated or progressed over time.

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바다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의 제목은 “주의 날” 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것으로 끝맺고 있으며, 많은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1	Day of destruction	Judgement against Edom is prophesied	1-9
2	Day of shame	The reason for God's judgment is revealed	10-14
3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What will be the result of God's judgement is revealed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15-21

Let us turn then to verses 15 and 16.

**15 “For the day of the LORD upon all the nations is near;
As you have done, it shall be done to you; Your reprisal shall return upon your own head.
16 For as you drank on My holy mountain, So shall all the nations drink continually;
Yes, they shall drink, and swallow, And they shall be as though they had never been.**

Verse 15 begins with the promise or assurance of future hope. Judah may feel disheartened at her plight, and Edom might feel proud that she escaped the fate of God's people. But a reversal of fortunes is imminent. The prophet tells us this through a commonly used biblical expression; he tells us that “The Day of the Lord is near.” He uses this term to indicate a future time when God will defeat chaos and those powers who oppose Him. It is if you like pointing to a time of God's ultimate triumph over evil. It is used throughout scripture to refer to any time that God intervenes in human affairs to accomplish His will. It is a common motif in many of the prophets, you can find it used in Zephaniah 1, Isaiah 13, Ezekiel 30 and Amos 5. We of course today are eagerly awaiting the Day of Lord which will be when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returns to rule and reign on earth. The prophet tells us what will happen on this momentous day. God will at this time judge the nations. In our sinful fallen world today it is often difficult to know what standards a judge is using. Sometimes criminals receive long sentences and at other times their sentences seem quite lenient. God however has clearly defined standards of justice that are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What Edom or other nations have done to Judah will be done to them. This system of justice is known as the *lex talionis* or in common parlance as the law of “tit-for-tat.” *Lex talionis* is Latin and means "the law of retaliation" it promotes the idea that the punishment a guilty person receives should match the offence committed. What you do to me I do to you. So if for example you attack someone, and they lose an eye then you too should lose an eye as punishment. We see the law neatly outlined in Leviticus.

Fracture for fractur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as he has caused disfigurement of a man, so shall it be done to him. (Lev 24:20)

Edom had their day of celebrating the fall and demise of Judah. How they rejoiced and celebrated as Jerusalem fell and was burned. The struggle and plight of God's people has been a recurring one throughout history. Partly due to their geographic location and their prosperity but also because of their status as God's chosen people the people of Israel have always been targetted by the surrounding nations. Even to this day Israel must always remain vigilant. Many of her near neighbors openly claim they want to see Israel completely destroyed. On many occasions throughout history Israel has been conquered. When an army overthrows an enemy it is always a time of celebration and rejoicing. The prophet wants us to picture here people drinking in

celebration of victory. However one day those that have targetted God's people shall drink from another cup. It will not be a cup of joyful success but instead it will be God's cup of wrath. It will leave them so completely destroyed that it will be as if they have never been.

15 절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으로 시작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곤경에 낙심하고 에돔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파한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역전이 임박했다.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경 표현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혼돈과 그분을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칠 미래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 전체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이며 스바냐 1 장 이사야서 13 장 에스겔 30 장 및 아모스 5 장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보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땅을 다스리고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이 중대한 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 많은 타락한 세상에서는 판사가 어떤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범조자들은 긴 형을 선고받고 다른 때에는 그들의 형량이 상당히 관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의의 기준을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에돔이 □ □ □ □ □ □ □ □ □ □ □ □ □ □ □ □ 이 사법 체계는 lex talionis 또는 통용어로 "tit-for-tat"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ex talionis 는 라틴어로 "보복의 법"을 의미하며, 유죄를 받은 사람이 받는 처벌은 저지른 범죄와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일은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들이 눈을 잃는다면 처벌로 당신도 눈을 잃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9:18에 깔끔하게 요약된 율법을 봅니다.

꿀절은 꿀절 눈은 눈 이는 이로 그가 사람을 흉하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리라 (Lev 24:20)

에돔에는 유다의 멸망과 멸망을 축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경축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투쟁과 곤경은 역사를 통틀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리적 위치와 변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주변 국가들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가까운 이웃 중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정복되었습니다. 군대가 적을 전복시킬 때 그것은 항상 축하와 환희의 시간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승리를 축하하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 □ □ □ □ □ □ □ □ □ □ □ □ □ □ □ .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른 잔으로 마실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성공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결코 없었던 것처럼 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17 “But on Mount Zion there shall be deliverance, And there shall be holiness; The house of Jacob shall possess their possessions.

Obadiah here highlights the contrast there will be between Edom and the other nations and God's people. God's people after many years of suffering will be delivered. There are a couple of ways that we might understand this verse. It may be that Obadiah is referring to the restoration of the people back to the land following the Babylonian captivity. They would return to the land with a new renewed sense of holiness and appreciation of God. Often our reverence and awe of God is magnified when we sense that He has done something amazing for us. Alternatively it might refer to the return of the Messiah. When the Lord Jesus Christ returns to rule and reign from Zion there will be holiness and God's people will possess what He intended them to have.

여기에서 오바디야는 에돔과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대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랜 고난

□□□□□ □□ □□□□□.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땅으로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들은 새롭게 새롭게 된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경외심이 커집니다. 또는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통치하고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의도하신 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8 The house of Jacob shall be a fire, And the house of Joseph a flame; But the house of Esau shall be stubble; They shall kindle them and devour them, And no survivor shall remain of the house of Esau,” For the LORD has spoken.

It used to be a common sight in the UK to see farmers burning stubble. At certain times in the year farmers would start controlled fires to clear the land of old crops and weeds. It was a very effective way to clear the ground and prepare it for a new crop to be planted.

Here the prophet wants us to picture Edom (the house of Esau) as a field of stubble. God's people are the fire that burns that stubble away and leaves the field clear. Just like a farmer sets a fire and the fire consumes that which is of no use or value so God will use His people to burn away evil. Fire is often used in scripture as a symbol of divine judgement, and as a tool fire is devastatingly effective. Fires consume all they touch and leave nothing behind. This is the fate of the nation of Edom according to God Himself. Today there is no nation of Edom and no one who can claim to be an Edomite.

영국에서는 농부들이 그루타기를 태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일년 중 특정 시간에 농부들은 오래된 농작물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통제된 화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땅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우리가 에돔(에서의 집)을 그루타기 밭으로 묘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쉼을 태우고 밭을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마치 농부가 불을 피우고 그 불이 쓸모 없는 것을 태워 버리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용하여 악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신성한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며 도구로 불은 파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불은 닿는 모든 것을 태우고 아무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따른 에돔 민족의 운명입니다. 오늘날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으며 에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19 The South shall possess the mountains of Esau, And the Lowland shall possess Philistia. They shall possess the fields of Ephraim And the fields of Samaria. Benjamin shall possess Gilead. 20 And the captives of this host of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possess the land of the Canaanites As far as Zarephath. The captives of Jerusalem who are in Sepharad Shall possess the cities of the South.

In verses 19 and 20 the prophet looks forward to a future time in which Israel will possess what once belonged to Edom. Obadiah predicts that Jews living in various parts of Judah would possess parts of the Promised Land that were occupied by other nations. Obadiah was of course speaking to people in his own day and assuring them that God had promised them a land inheritance. They would not remain in captivity forever. Soon they would return to their land. We can also look far beyond Obadiah to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1948. When Jews returned to claim their land it set in motion a series of events that all lead to the return of Christ. When our Lord returns Israel will cover a much larger portion of land than her current borders encompass. This is God's promise to His people. According to bible scholar J Vernon McGee this will amount to an area of approximately 300,000 square miles. To put this into perspective even during the height of the nation of Israel under King Solomon they only ever occupied about 30,000 square miles. Today the total area of the nation of Israel is 22,000 square miles.

21 Then saviors shall come to Mount Zion To judge the mountains of Esau, And the kingdom shall be the LORD's.

[illegible]

I have five lessons for us to think about from the book of Obadiah.

In the ancient world every nation or people group had their own god or often gods. These gods were often bound by geography or space. There was a god of the mountain, a tree or a rock. We know

that in reality these gods were nothing more than the ideas, or creations of men. There is only one true God, and He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Just because Edom didn't believe He existed didn't mean that He could or would not exert His will over them. Likewise, today atheists may deny God's existence but one day they will come face to face with Him. We would be wise then never to forget that our sovereign God is in control of all things at all times.

2 Pride is a killer.

Pride makes us believe the best about ourselves and the worst about everyone else. Edom allowed pride to deceive them. They genuinely believed that they had no need for God. That is what pride always does, it puffs us up so that we do not see the truth about ourselves. How foolish and short-sighted they were. How much better would it have been for Edom to lay down their pride and humbly accept God's choice of Israel. Instead of judgment, they would have benefited from the blessings of God as supporters of His people. And we today must be constantly aware of the danger of pride. We must be aware of how it twists our thinking about both ourselves and others.

3 God keeps His word

When God says He will do something He will do it. It will always be in His own good time, but He will never break a promise. The people of Judah were in a state of great despair, and yet they had the reassurance of God's promises to cling to. We too may be in a state of unhappiness or despair. Life may not have turned out as we'd wished or hoped. And yet we have God's promises of eternal joy and happiness to look forward to. God has made us a promise, and He always keeps His word.

4 Live as if judgment could be tomorrow

As Edom watched and celebrated at Judah's fall they must have thought the good times were about to begin. Sadly for them their moment of joy would be short-lived. God's judgment would be swift and devastating. What happened to Edom presents us with a sobering picture. We do not know when our time on earth will end. We do not know when we might be called to heaven and have to face God. We should therefore live our lives as if this could be at any moment.

5 Living like Jacob not Esau

It seems fitting to end our study of Obadiah by talking about two brothers. One although crafty and cunning was determined to get God's blessing. The other lived for the present and was only interested in the immediate satisfaction of his physical desires.

We might say that Jacob was spiritual and Esau was materialistic. We both have these two sides within us. Our spiritual side often wars against our physical side. How often does our desire for the fleshly things of the here and now override the more important considerations of eternity? The book of Obadiah shows us what happens at the end to these two competing sides to our nature. We can either be like Jacob, blessed by God and living for eternity in God's glory. Or we can choose to be like Esau, burnt up and destroyed. Let us in all things choose wisely and seek to be like Jacob and not Esau.

With that we bring this study of Obadiah to a close. I hope that you have enjoyed this brief examination of this often ignored book of the bible. I also hope that with your new understanding you will be better able to appreciate and value the message of the prophet Obadiah. Most of all I hope and pray that through the Holy Spirit you have learned some useful lessons from our study. Our desire as followers of Christ must always be to seek to know and love Him better. We can best do this by reading and studying His revelation to us.

□□□□□□

오바다에서 우리가 생각할 다섯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주권자이다

고대 세계에서 모든 국가 또는 종족 그룹에는 고유한 신이 있거나 종종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종종 지리 또는 공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산의 신 □□□□□□□□□□ 우리는 실제로 이 신들이 인간의 관념이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애덤이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그들에게 그분의 뜻을 행시킬 수 있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 프라이드는 컬러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좋은 점을 믿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가장 나쁜 점을 믿게 만듭니다. 에돔은 교만이 그들을 속이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교만은 항상 하는 일이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시안적이었습니까? 에돔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심판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교만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항상 그분의 좋은 때에 있을 것이지만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큰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불행하거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바라거나 바리던 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대할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항상 말씀을 지키십니다.

4 심판이 내일인 것처럼 살아라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고 축하할 때 그들은 좋은 때가 곧 시작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에게 기쁨의 순간은 잠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에돔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냉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상에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하늘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마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 애서가 아닌 아꼴처럼 살기

두 가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바다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끝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는 교활하고 교활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를 위해 살았고 그의 육체적 욕망의 즉각적인 만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굽은 영적이고 에서는 물질주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은 종종 우리의 육체적인 면과 전쟁을 합니다. 영원에 대한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육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자주 무시합니까? 오바다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 두 경쟁적인 측면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아굽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서처럼 불타서 멸망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혜롭게 선 □□□□□□ □□□ □□□ □□ □□□ □□□□. 이것으로 오바다에 대한 이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 □ □□ □ 주 무시도는 이 성령에게 대한 이 간단한 검토를 즐겼기를 바랍니다. □ □ □□ □□□ □□□ □□□ □□ □□□ □ 바다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구에서 몇 가지 유용한 교훈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소망은 항상 그분을 더 잘 알고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읽고 연구함으로써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